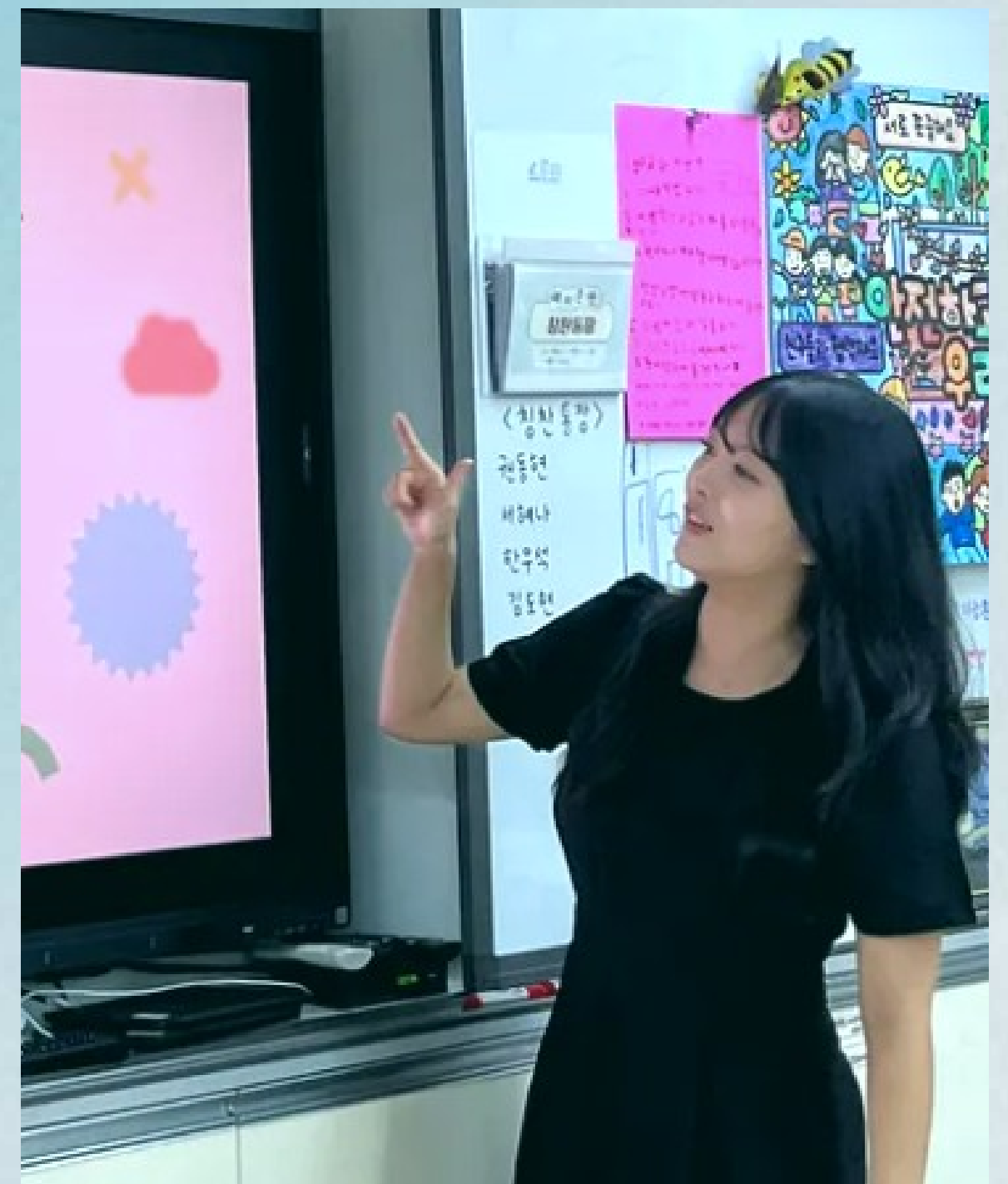


임도경 졸업생

제주 영지학교(공립) 교원

Q1. 특수교사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과 국어, 음악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수 교육 대상자는 개별 차이가 커 맞춤형 수업이 필수적이기에, 초임 시절에는 수업 효과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선 굵기도 어려워하던 학생이 이름을 쓰고, 음악 수업에서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이 직업의 가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Q2. 우리 대학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학과에서 진행했던 진로 특강 및 교수님과의 1:1 진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임용 준비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학년별 학습 방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강 후에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계절학교에 자원 교사로 참여해 실무 역량을 키웠고, 학과 내 교수님의 지도 아래 그룹 스터디를 운영하며 본격적인 임용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Q3. 대학생활 중 기억에 남은 경험이 있다면요?

3학년 때 학술제 팀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아 자료 조사와 발표를 주도했고, 팀원들과 열심히 노력한 끝에,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경험 덕분에, 4학년 학과 대표로서 학생과 교수님 간의 의견을 조율하며 학교생활을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Q4. 임용시험 준비 과정은 어땠나요?

중등 임용시험 준비가 마냥 쉽지는 않았지만, 막막함보다 "조금이라도 더 해보자"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교수님의 지도와 동기들과의 그룹 스터디, 졸업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제 공부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2025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초·중등 모두 초수 합격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Q5. 재직 중인 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복지에 힘쓰셨다고요?

교원 업무와 더불어 학생 복지 업무를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유년 시절부터 약자를 위한 미용 봉사에 힘쓰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마침 제가 재직 중인 학교에도 경제적, 환경적 이유로 인해 미용실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주 지역 봉사단체인 '사랑 실은 교통 봉사대'와 협력해 매달 학교에서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고, 저 역시 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Q6.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꿈과 목표를 가지세요, 그리고 학교를 믿으세요." 저도 수험생활 중 불안과 걱정이 많았지만,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학교 진로 특강, 교수님들의 조언, 여러 학과 활동에 참여한 것이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